

## 10장 가상 실효적 포섭과 가치법칙의 위기 II

(1교시)

### ▲ 1850년대 맑스가 정식화 한 포섭의 두 유형 : 형식적 포섭과 실재적 포섭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 형식적 포섭, 실재적 포섭

→ 완강하게 **노동의 길**이라고 하는, 즉 **노동시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개념

노동시간이라고 함은 출근과 퇴근을 엄두에 두도록 만든다. 즉 노동을 시작하는 절대적 출발점과 종료점이 존재하며 이것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결국 노동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

### ▲ 비물질노동의 성격

-자본주의는 시간을 연장으로 도식화시키는 체제.

-노동시간은 출퇴근을 엄두에 두게 됨.

-비물질노동은 노동시간이란 잣대로 포섭할 수 있는 것인가?

→ 근력을 쓰는 노동은 시작과 끝이 보다 분명하다.

이로 인해 필요, 불필요의 동작이 규정되기 때문에 몸 동작을 지체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고안됨.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동자는 더욱 힘이 들게 됨.

불필요한 인간 동작을 기계로 대체시키기에 이름. 그러나 산업노동을 벗어나 비물질노동으로 이행되면 이러한 적용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됨.

### ▲ 비물질노동의 요소

하루 종일 돌아가는 특징을 갖는다.

Knowledge

Information

Communication

Affection

1. Knowledge - 지식 노동은 **태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초-중-고를 거치면서 지식생산의 **훈련과정**을 거치게 됨. 계산하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남.

2. Information - **정보**라는 양식은 물화 되어 있는 지식. 정보의 생산, 재생산 과정 역시 개시-종료가 불명확함.

ex> 정보화 시대 속의 벤처 기업에 노동시간은 측정이 불가능. 아이디어의 생산현장은 공간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것이 **정보 노동자**들의 특징임.

3. **Communication** - 사이버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해 보라. 수량화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님.

4. **Affection** - 서비스 노동이 이 범주에 속함. 이른바 정동적 노동. 언제부터가 노동의 시작인지 측정 불가능.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임.**

→ 결국, 이 모든 것은 규정할 수 있는 연장성을 가질 수 없는 요소들임.

#### ※ <보론> 사회기계 체제와 비물질노동

- 기술기계의 발전과 확대이용은 공장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기계의 개념에 따라 이해하고 또 그렇게 조직할 수 있게 만든다. 즉 **사회기계가 탄생.**

사회기계 속에서 인간은 기술기계들과는 다른 유형의 기계(인간기계)로서 기술기계들과 연결된다. 연구기계, 조절기계, 소통기계... 자연물까지도 기계적인 것으로 재배치 됨.

따라서 기계적인 것들의 네트워크가 곧 사회기계를 구성.

- 사회기계 체제에서도 **노동과정과 가치화과정의 이중성**이 나타나는가?

사회기계의 작동을 노동과정으로 이해하는 한에서는 그렇다.

그렇지만 사회기계의 작동은 전통적 노동개념(즉 임금노동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많은 요소를 함축함.

**‘사회적 노동’은 자연과 인간과 기계가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사회적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노동**은 노동과정이라기보다 **사회적 삶의 생산과 재생산과정** 자체.

‘상품인 노동력 사용의 노동’이 삶의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위치로 떨어지기 때문임. 기계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사회기계의 작동을 구성.**

사회의 기계적 정보적 네트워크의 작동을 노동 개념을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가 비물질적 노동 이론

(2교시)

### ▲ 맑스의 가치법칙의 유효성

개시와 종료를 따질 수 없다면, **공간화 된 시간에 근거를 두었던 가치법칙의 유효성**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 제기

맑스의 가치법칙은 비물질노동의 대두 이래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됨.

### ▲ 새로운 가치법칙의 대두 - 가상 실효적 잉여가치론의 대두

- 가상 실효적 잉여가치: 비고용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전유하고 포획하기

→ 비고용노동자의 삶의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포획하여 착취.

ex) TV 시청시간도 생산소비활동임. 홈쇼핑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음. 휴식과정 자체가 산업의 영역에 들어감. 삶 전체가 노동이 된 즉 삶과 노동의 통합이 이루어짐  
다시 말해 원형적 입체적 시간의 착취가 시작.

**형식적 포섭**이란 전자본주의적 생산요소들이 자본주의 속으로 이동하고 형식적으로만 자본이 관리하는 것.

**실재적 포섭**은 자본주의에 생산요소들이 포함되는 것.

**가상 실효적 포섭**속에서의 생산요소 → 비가시적, 실재적 포섭의 연장선(생산수단과 생산자, 원료가 모두 자본주의 속에서 형성)

### ▲ 가상 실효화와 등가성의 원리

- 착취의 가상실효화로 말미암아 가치론적 재현이 정당성을 잃는다.

- 재현개념에 기초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의미는 제한된다.

- 형식적, 실재적 포섭의 형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단,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가상 실효적 포섭이라 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전통적 잉여가치는 없다. 물론 잉여는 생산되고 있다. 그것을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잉여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임.

→ 달리 생각하면 노동의 전면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버추얼리즘에 입각한 포섭은 가상 실효적 포섭이다.